

철학사  
33 데카르트의 성찰 2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저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오후에는 데카르트의 명상록 3권과 4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 두 권에 '데카르트의 신과 인간 이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명상록 2권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존재하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인데, 생각하는 존재로서 나는 신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면, 신의 존재와 같은 다른 어떤 명제를 논증하기 위한 두 가지 가능한 전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물질 세계의 존재나 자연의 질서 있는 목적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우주론적 또는 목적론적 논증은 불가능합니다. 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그가 생각하는 관념들뿐입니다. 그런데도 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관념들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관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선천적 관념이라고 부르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전생에서 비롯된 선천적 관념은 아닙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관념은 선천적이며, 우리에게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발적인 관념도 있는데, '우발성'이라는 용어에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들은 외부적인 원인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자발적인 생각들입니다. 그것들은 내 의지와는 무관한, 비자발적인 생각들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각들입니다.

그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걸보기에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즉 우연히 이러한 관념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념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관념들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 경우, 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관념들이죠. 예를 들어 나비 날개를 가진 요정 기린이라는 관념처럼 말입니다. 이 관념은 내가 여러 가지 다른 관념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시 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관념이 있는데, 이 장에서 신의 존재에 대해 저자는 신이라는 관념이 내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관념이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 오히려 비자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 그는 신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실재의 가장 완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따라서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세 가지 출발점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신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명상에서 도출되는 이 두 가지 결론을 모두 활용할 겁니다. 이해했나요? 네.

자, 그럼 우선 그가 신이라는 개념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는 동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신이라는 개념이 객관적 실체를 지닌다고, 즉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모호하고 불분명한 생각은 그런 객관적 실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는 명확성과 뚜렷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직관적 개념에 대한 오래된 기준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명확성과 뚜렷함을 생각의 객관적 실체와 동일시하는 듯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객관적 실재'라는 표현을 쓸 때, 그는 관념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관념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표상론적 인식론에서는 관념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념을 생각 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외부 사물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실재를 갖는 것은 바로 관념입니다.

외부 사물은 관념이 갖는 객관적 실재성만큼, 적어도 그만큼의 형식적 실재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관념의 원인은 결과만큼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유사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관념은 어떤 것의 결과이고, 어떤 것에 의해 야기됩니다. 신이라는 관념은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고, 독특한, 객관적 실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념의 원인은 적어도 상당 부분 형식적 실재, 즉 사물의 본성이라는 외적 실재를 가져야 합니다. 형식적 실재가 객관적 실재만큼 커야 한다는 것은 원인이 결과만큼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그가 이러한 인과 관계 개념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하다면,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장에서 그 구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형식적 실재가 객관적 실재 만큼 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만약 자연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준다면, 인과관계라는 개념은 부수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을 통해 배우는 개념입니다. 외부 사물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생겨나는 개념이죠. 원인이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 형식적 실재, 객관적 실재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사실이 도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38페이지에 있는 선집을 보시면, 이 사고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읽을 때는 다소 모호할 수 있으니,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상집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첫 번째 칼럼 맨 아래에서 저자는 신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신의 개념 말입니다.

주권자, 영원자, 무한자, 불변자, 전지전능자, 자신 밖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보시다시피, 이것이야말로 유신론적 존재에 대한 매우 명확한 개념입니다. 영원자, 무한자, 불멸자, 주권자, 전지전능자, 자신 밖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제가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유한한 실체를 표현하는 관념들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실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한 속성들에 관하여 무한한 존재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빛, 즉 자연의 빛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에도 결과만큼이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 합니다.

결과가 원인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그 실체를 도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이다. 그리고 39쪽 하단 에서 그는 이러한 즉각적인 사고의 흐름을 요약하여 내가 이 모든 것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제시한다. 그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만약 객관적 실재성이나 내 관념 중 어느 하나의 완벽함이, 그 실재성이 내 안에 형식적으로든 탁월하게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고, 따라서 나 자신이 그 실재성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유아론, 즉 '나만이 존재한다'는 유아론은 거짓이다. 나 말고도 완벽한 존재라는 관념의 원인으로서 존재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

자, 제 생각들 중에는 저 자신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이 부분은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신을 나타내는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신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춥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앞으로 사용할 논리적 틀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 현실과 형식적 현실의 대립 개념, 그리고 인과관계는 그가 앞으로 어떤 주장을 펼칠지를 암시합니다. 40페이지 중간쯤, 두 번째 열의 중간 단락에서 그는 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신이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고 독립적이며 전지전능한 실체이며, 나 자신과 존재하는 모든 것(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을 창조한 존재이다." 네, 본질적으로 같은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성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해서, 내가 그것들을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볼수록, 내가 가진 신에 대한 생각이 오로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그는 내가 가진 신에 대한 생각이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원인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연적 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실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실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유한한 존재인 내가 무한한 실체라는 개념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한한 실체라는 개념이 실제로 무한한 어떤 실체에 의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원인은 결과만큼 커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41번 항목의 첫 번째 단락에서 그 개념을 매우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다음 단락의 시작 부분은 지극히 완벽하고 무한한 존재에 대한 개념으로, 최고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41번 항목 두 번째 열의 맨 아래쪽에는 신은 실제로 무한 하기 때문에 그의 완벽함에 더 이상 무엇을 더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는 42절에서, 유한한 존재인 자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내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으려면,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끌어들이습니다. 첫째, 신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실재성, 명확성, 그리고 구별성이 가장 완전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신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하는 존재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43의 두 번째 열 맨 아래에서 드러난다.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열 맨 아래에서.

그는 부모를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 두 번째 열 중간쯤에서 끝나는 문단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완벽 하다는 생각, 즉 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의 존재가 가장 명확하게 증명된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는 그것을 감각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순전히 제 마음의 산물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아 개념이 선천적인 것처럼, 이 개념 또한 선천적이라는 대안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 마치 장인이 자신의 작품에 새긴 표식처럼 이 개념을 제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표식이 작품 자체와 항상 다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만 고려해도,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저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저는 제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감각으로 하나님의 개념이 담긴 이 형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저 자신을 유한한 사고하는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무한한 사고하는 존재, 즉 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는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나는 불완전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위대한 것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의존하는 그분이 내가 갈망하는 모든 선을 소유하고 계시며, 따라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이 논증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지금과 같은 본성을 지녔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관념을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은, 마음이 어렴풋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는 모든 고귀한 완전함을 지니고 계시며, 모든 결점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

그러므로 이는 그가 속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기와 기만은 어떤 결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창조주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원인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 즉 속이는 자가 될 수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네 번째 목상이 의존하게 될 또 다른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그건 바로 그 점에 달려 있습니다. 명상 1에서 처음 제기되는 회의적인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어떤 악한 존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다면, 우리를 속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고난 능력은 기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오류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주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좋습니다. 잠시 신의 존재에 대한 논증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살펴보십시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인과관계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과관계 논증이죠. 우주론적 논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우주의 질서정연한 설계 에서 출발하는 목적론적 논증도 아닙니다 . 하지만 여전히 인과관계를 논증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는 정신의 존재와 그 정신이 가진 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관념,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논증입니다.

이것은 안셀무스의 경우처럼 신의 개념을 분석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 자기모순임을 보여주려는 존재론적 논증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는 논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명상록 5장에서 존재론적 논증을 전개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 명상 5의 존재론적 논증과 명상 3의 인과론적 논증을 혼동하지 마세요. 차이점을 이해하셨나요? 자, 왜

그는 존재론적 논증을 명상 5까지 미뤄두었을까요? 명상 3에서 한꺼번에 다루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충분한 논리적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역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논증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논증을 하려면 , 인간 이성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실제로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 인과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필연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의 개념 내적 논리를 분석하여 존재론적 논증을 구성하려면, 인간 이성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확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명상 4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명상 4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존재론적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을 잘 따라오셨나요, 아니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으신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빛과 깨달음의 은유는 플라톤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온 주제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독교 전통에서 계몽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가장 명확하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계몽주의란 신성한 로고스의 빛이 인간의 마음을 밝혀 영원한 진리, 즉 사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밝히는 로고스라는 개념은 중세 시대에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에 속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보나벤투라 같은 인물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을 따르기보다는 로고스가 마음을 밝힌다고 주장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기억하시죠? 반면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로고스 교리를 계승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모범주의, 즉 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형적 관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신적인 로고스가 인간의 마음을 밝힌다고 말하는 대신 이성의 빛, 바로 이성의 빛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 빛입니다 .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깨달음이라는 개념은 신학에서처럼 신자들의 마음을 밝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처럼 로고스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밝힌다는 개념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고스가 비추는 빛 덕분에 인간이 보편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간의 마음 속에서 .

그는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 에 관해 마음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즉, 마음의 자연적인 능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그 자연적인 능력입니다 .

자연적 능력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능력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적어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에는 그렇게 들리지만, 데카르트에 이르러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이성의 빛.

이성의 자연광. 자연의 빛, 바로 그것이 18세기 계몽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신께서 "뉴턴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온 세상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뉴턴의 과학적 추론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전통과 데카르트 전통을 구분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깊은 의심 속에서도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깊은 의심 속에서도 나는 존재해야 한다는 거였군요.

어둠 속에도 빛은 있습니다. 왜 그는 명확하고 분명한 생각을 시각적인 은유로 표현할까요? 아시다시피,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만 생각이 명확하고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어쩌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 신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이러한 관념들을 생각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면, 신에 대한 관념 자체가 우리의 사고 능력에 따라 주관적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죠? 관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개들이 신에 대한 관념을 갖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개들은 관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감각적 이미지는 있을지 몰라도 추상적인 관념은 없을 겁니다. 신이라는 관념은 단지 주관적인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등이 바로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념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어반복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참인지, 즉 마음속의 생각에 상응하는 것이 현실에 존재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어진 거예요.

그는 " 이런 생각이 있어요 . 문제는 어디서 그런 생각을 얻었냐는 거죠. 이해되지요? " 라고 말했습니다 . 그는 그것이 자신의 상상 속 허구일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이는 곧 프로이트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건 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투영이 아니야."

보세요 ?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고요. 제 경험상 다른 여러 요인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본 어떤 물리적인 신체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아니, 그것은 선천적인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개념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니까요.

알겠습니까? 무한한 존재라는 개념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원인은 결과만큼이나 위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존재여야 합니다.

자, 어찌면 여러분은 이 주장이 너무 단순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증상 차원에서는 문제점을 아주 쉽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는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념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의 관념은 가능한 가장 위대한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 점을 놓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가 무한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인간 사상의 발전 과정에 관련된 요인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요 ?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고대와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때문에 무한이라는 개념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런데 저는 무한한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학에서는 무한이라는 개념과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무한이라는 개념에 도달하는 과정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주 큰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무한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죠. 아니, 하지만 그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진실, 명확성, 그리고 구별됨에 대한 이러한 직관적 기준이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생각이 "완벽하게 명확하다"고 말하면, "글쎄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내가 당신 얘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 대답이라고요.

인테, 우리가 쓴 논문이나 시험지에 뭔가를 완벽하게 명확하게 썼다고 생각해도, 채점 결과를 보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있죠. 제 경험상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제가 이 시점에서 데카르트에 대해 가장 강조하려는 것은 그의 방법론입니다. 이 기초주의적 방법론의 한계는 사고의 흐름이 전개됨에 따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요? 글쎄요, 그는 인간 이성의 신뢰성에 대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 이성이 논리의 법칙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신뢰성, 즉 믿을 만한 논리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죠. 네, 바로 그게 그에게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요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네요.